

## 각이한 언어들에서의 품사에 대한 분석

김 형 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학습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은 대학기간에 적어도 한두개 나라의 말은 소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서적을 자유자재로 볼수 있으며 대학을 졸업한 다음 제구실을 할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444페이지)

외국어학습에서는 각이한 언어들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대비하여보면서 묘리를 가지고 습득하는것이 중요하다.

단어의 어휘-문법적범주로서 품사는 그 문법적의미와 형태론적특성, 문장론적기능에 의하여 서로 구별된다.

매개 단어는 이러저러한 품사에 소속되어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주어진 품사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있는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먼저 각이한 언어들의 품사에 설정되는 문법적범주들의 차이를 분석하기로 한다.

언어에 따라 품사에 설정되는 문법적범주들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일부 언어들에 설정되는 문법적범주가 다른 언어들에는 설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실례로 로어단어 белизна를 들어보자. 이 단어는 일정한 개념을 의미하므로 명사라는것이 의심할바 없으며 белый나 белеть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뒤붙이 -изн에 의하여 개념이 나타난다. 이 단어는 명사의 특성인 격범주와 성범주를 가지고 주어와 보어의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할수 있으며 명사술어로도 될수 있다. 그러나 수에 따라 변하지 않으므로 이 단어는 명사가 가지고있는 특성가운데서 수범주를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류형의 다른 로어단어들로는 пальто나 метро 등을 더 지적할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우리 말 단어에는 수범주를 표현하는 토가 얼마든지 붙을수 있다.

다음으로 언어들에 따라 각이하게 존재하는 품사의 단어조성적 및 형태론적표식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모든 언어들에서 품사의 공통적인 구별적표식들로는 의미론적표식, 단어조성적표식, 형태론적표식, 문장론적표식 등이 있다. 의미론적표식과 문장론적표식은 가장 일반적인 표식으로서 각이한 류형의 언어들에서 큰 차이가 없다. 모든 언어들에서 의미론적으로 명사는 대상을, 동사는 행동을, 형용사는 대상의 표식을 그리고 부사는 행동이나 상태의 표식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다. 그리고 문장론적으로 명사는 주어나 보어의 기능을, 동사는 술어의 기능을, 형용사는 규정어의 기능을 그리고 부사는 상황어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다.

품사의 의미론적표식과 문장론적표식은 호상 련관되어있으나 꼭같지는 않다. 동사는 술어로 되지만 모든 술어가 동사인것은 아니며 명사의 주격형태가 주어의 형태일수는 있으나 모든 주어가 명사의 주격형태인것은 아니다.

품사의 단어조성적표식은 그의 단어조성적모형의 총체이며 주어진 품사의 어휘적완결성을 위한 단어조성적수단들의 목록이다.

로어동사에서는 동사내부에서의 앞붙이수법이 단어조성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명사에서는 명사내에서의 뒤붙이수법이 전형적인 단어조성수법이다.

그러나 단어조성적 및 형태론적표식은 언어들마다 다르기때문에 품사들의 종류도 각 이하다. 실례로 조선어에서는 8개의 품사(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를 구별하고 로어에서는 흔히 10개의 품사(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수사, 부사, 전치사, 조사, 접속사, 감동사)들을 구별하며 영어에서는 10개의 품사(명사, 형용사, 수사, 대명사, 관사, 동사, 부사, 감탄사, 전치사, 접속사)들을 구별하며 프랑스어에서는 10개의 품사(명사, 수사, 대명사, 관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들을 설정한다.

다른 언어들에 없는 《관형사》라는 품사를 조선어에서 설정하게 되는것은 관형사로 되는 단어들(온, 모든, 온갖, 여러, 어느, 무슨)이 단어결합적성격에서 형용사와 다르기때문이다. 형용사(아름다운 나라)와 관형사(온 나라)는 다같이 대상의 표식을 지적해주는 단어로써 의미론적기능과 문장론적기능은 같지만 단어결합때 형용사는 규정도와 함께 쓰이지만 관형사는 토가 쓰이지 않기때문에 형용사와 관형사를 갈라보게 된다.

프랑스어나 다른 언어들에서 관형사라는 품사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형용사에 포함시킨것은 그것들이 문법적으로 서로 구별되지 않기때문이다.

실례로 프랑스어단어결합 *toute nation*(매 민족), *plusieurs personnes*(여러 사람), *aucune femme*(어떤 녀인)에서 *tout*, *plusieurs*, *aucune*는 규정하는 단어에 따라 형용사처럼 형태변화를 하기때문에 프랑스어에서는 이러한 단어들을 형용사에 포함시키고 관형사라는 품사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각이한 언어들의 품사체계에서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품사체계는 친족어들의 경우에도 다르지만 비친족어들의 경우에는 차이가 더 많다.

로어와 파파르어는 품사의 표식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로어명사나 파파르어명사나 할것없이 의미론적으로는 대상성의 의미를 가진다는것, 격과 수에 따라 변한다는것은 공통적이지만 뒤붙이구성요소들과 수형태 그리고 격형태의 조성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로어에는 주격, 생격, 여격, 대격, 조격, 전치격이 있으며 파파르어에도 6개의 격이 있으나 그 내용은 차이난다. 즉 기본격(주격), 소유격(생격), 방향격, 출발격, 장소 및 시간격이 있다.

완전히 다른 류형의 언어인 조선어와 대비하여보면 격의 수와 내용에서 차이는 더 크다. 조선어에는 8개의 격(주격, 속격, 대격, 여격, 조격, 위격, 구격, 호격)으로서 로어에 없는 호격이 더 있다. 조선어에서는 부름말로 쓰이는 단어에 토가 붙어서 고유한 격형태를 가지므로 호격이라는 격범주가 설정되지만 로어에서는 부름말로 쓰이는 단어가 형태변화를 하지 않기때문에 호격이라는 격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어명사에는 격범주가 없다. 그것은 프랑스어명사가 격에 따라 형태변화를 하지 않으며 격의 의미는 단어형태밖에서 보조어나 어순에 의하여 표현되기때문이다.

예: 대학생의 책

книга студента  
livre de l'étudiant

우의 실례의 조선어에서는 소속의 의미가 속격토에 의하여 표현되고 로어에서는 생격어미에 의하여 표현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격의 의미가 단어밖에서 전치사에 의하여 표현

되기때문에 명사에 격범주를 설정하지 않는다.

명사의 성범주도 언어에 따라 각이하다. 로어나 프랑스어의 명사는 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성범주를 가지고있으나 조선어나 따따르어, 영어에서 명사는 성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지 않으므로 성범주가 없다.

주요품사의 하나인 동사도 언어에 따라 형태론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조선어에서 동사의 피동상은 토나 피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보조동사 《되다》에 의하여 표현되지만 로어에서는 뒤불이 -ся에 의하여 표현되며 프랑스어에서는 동사의 피동형이 보조적단어 être와 기본동사의 과거분사로 이루어진다.

례: 토끼는 사냥군에게 잡히였다.(토에 의한 피동의 표현)

이 건물은 노동자들에 의하여 건설되였다.(동사교체에 의한 피동의 표현)

Cette maison est construite par les ouvriers.(조동사와 과거분사의 결합에 의한 피동의 표현)

Книга читается ученикам.(뒤불이에 의한 피동의 표현)

다음으로 각이한 언어들의 품사의 문장론적기능실현에서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각이한 언어들에서 동일한 품사에 대하여 의미론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문장론적으로는 달리 표현되고있다. 그것은 품사의 문장론적기능이 의미론적기능에 비하여 훨씬 가변적이기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품사의 1차적인 의미적기능과 함께 2차적인 문장론적기능에 대하여 논할수 있으며 그 가능성은 언어에 따라 각이하다. 형용사의 2차적문장론적기능을 다음과 같은 실례에서 찾아볼수 있다.

례: 꽃병에 흰 장미와 붉은 장미가 있다.

흰것이 붉은것보다 더 아름답다.

В вазе стояли белые и красные розы.

Белые бели красивее красных.

Dans le vase il y a des roses blanches et rouges.

Les blanches sont plus belles que les rouges.

우의 로어실례에서 보면 첫 문장의 белые와 красные는 형용사들에 고유한 범주적표식(의미론적으로는 대상의 성질을 표현하는 의미론적기능과 문장론적으로는 규정어로 되는 기능)을 보존하고있다. 그러나 두번째 문장에서는 형용사들이 품사로서의 의미적기능은 보존하고있으나 문장론적으로는 형용사들이 명사화되어 주어와 보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로어에서는 특별한 보조적수단이 없이 형용사가 명사화되지만 조선어에서는 불완전명사 《것》에 의하여, 프랑스어에서는 관사를 첨가하여 형용사를 명사화한다.

동사는 일반적으로 술어로 되지만 모든 술어가 동사에 의하여 표현되는것은 아니며 명사의 주격형태도 문장에서 주어로 되는것이 기본이지만 모든 주어가 명사의 주격형태인것은 아니다. 형태와 기능사이의 이러한 불일치현상은 모든 언어들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고있는 현상이지만 그 양상은 크게 차이난다.

우리는 각이한 언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서적들을 자유자재로 볼수 있게 외국어를 원만히 소유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